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01.0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오스트리아, EU 차원의 이맘 등록 의무화 확대시행 촉구
 - 1.1 오스트리아는 '20.11월 '빈 총격테러' 발생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 및 극단주의 전파 차단을 위해 자국에서 시행중인 이맘(이슬람 종교지도자) 등록제를 EU에서도 확대시행 할 것을 촉구
- 인터폴, 테러단체의 “코로나19 악용” 영향력 강화 경고
 - 1.4 「위르겐 스톡」 인터폴 사무총장은 “테러단체가 코로나19를 악용하여 자금을 모으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”며 회원국 간 이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경고

미주

- 美, 테러자금 차단 위해 골동품 시장 규제 강화
 - 1.1 NYT는 美 의회가 테러단체 및 범죄조직의 돈세탁·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골동품 거래시장에서 매도인·매수인 신원을 숨길 수 없도록 거래자 신원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
- 美 연방항공청(FAA), 드론 위치 전송 의무화 법안 추진
 - 1.4 美 연방항공청은 드론산업 성장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영공을 비행하는 모든 드론과 그 조종사의 위치정보 전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
 - * 美 교통부 등록 드론은 약 170여만대이며 드론 조종 자격자는 20만 3천여명

아 · 태평양

○ 아프간, 탈레반 연계 中 간첩단 리더 체포

- 아프간 당국은 카불에서 中 간첩단 리더 '리양양'을 체포했으며, 이들이 탈레반 분파 '하카니 네트워크'*와 연계하여 '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'**과 관련된 신장 위구르족을 추적한 것으로 확인

* 하카니 네트워크(HQN): '70년대 아프간內 서방세력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극단주의 무장단체로, 파키스탄과 아프간 동부 3개州에서 활동중(약 3천~5천명) ※ UN·美·英·캐나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** 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(ETIM): 1997년 中 신장지역內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극단주의 무장단체로, 신장위구르지역 등에서 활동중(아프간에 약 350명·시리아에 약 4천명 추산) ※ 東투르키스탄은 中 신장지역을 의미 / UN·美·英·中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○ 과기부, 불법 드론 탐지 전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

- 과기정통부는 軍의 무인무기체계 확대와 불법드론 탐지를 위한 전용 레이더 필요성 증대에 따라, '21년에 국방·치안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.13GHz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

○ 파키스탄, 자국내 가장 위협적 테러단체로 '파키스탄 탈레반' 지정

- 1.5 파키스탄 싱크탱크 평화연구소(PIPS)는 '20년 자국에서 발생한 146건의 테러 중 67건*(46%)이 '파키스탄 탈레반'(TTP)의 소행이며, 同 단체가 자국의 치안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발표

* 파키스탄 텔레반의 67건의 테러로 220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

중 동

○ 사우디 등 아랍 4개국,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

- 1.5 AFP통신은 아랍권 4개국(사우디, UAE, 바레인, 이집트)이 '걸프협력 이사회의'(GCC)에서 걸프·아랍·이슬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

* '17.6 카타르의 親이란 정책과 테러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 선언

샤를리 에브도 테러

- '15.1.7 11시경 프랑스 파리의 풍자 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'(Charlie Hebdo) 본사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이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
- 테러범들은 범행시 “알라후 아크바르”를 외치고 “예언자 무함마드의 복수를 했다”고 소리쳤으며
 - 범행 후,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
- 同 테러는 '06년부터 무함마드 비하 만평을 '샤를리 에브도'에 게재 하면서 무슬림의 큰 반발심을 일으키고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
 - * 테러 이후 1.14 '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'(AQAP)가 배후를 자처

테러 상식

< '샤를리 에브도'(Charlie Hebdo)誌 >

< 샤를리 에브도誌 > '60년 '하라키리'라는 월간지로 창간되었다가 '70년 「샤를 드골」의 사망을 조롱하여 출판 금지된 후 '샤를리 에브도'로 개명하고 천주교·유대교·정치인 등에 대해 만화·농담·르포 형식으로 공격·비판적 기사를 내고 있는 프랑스의 풍자 전문 주간지

< 비판과 논란 > 反종교·反인종주의·무신론 등을 표방하며 '성역없는 풍자'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도한 풍자로 인해 각종 비판을 받고 있으며, “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”는 쪽과 “종교 모독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”는 논란 유발

< 테러 및 논란의 확산 > '15.1.7 '샤를리 에브도' 본사 테러 이후, '20.10.16 同 잡지의 '무함마드' 만평으로 수업을 한 佛 중학교 역사교사 참수 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 확산
 ※ '20.9.25 舊사옥 인근 흥기테러(2명 부상), 10.29 니스市 성당 인근 흥기테러(사망 3)도 발생

< '20년 다발 테러 분석 > △프랑스가 헌법에서 정교 분리를 적시할 정도로 강한 '세속주의' 문화에 기반하여 종교 풍자·신성모독 행위를 '표현의 자유'로 인정하는 전통적 분위기와 이에 대한 반발심, △프랑스內 사회·경제적 소외에 시달리는 무슬림 2·3세의 자생적 테러리스트化, △마크롱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에 따른 서방-이슬람 국가간 갈등 확산 등이 관련 테러가 빈발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